**덴구다키 폭포**

높이 8미터의 덴구다키 폭포는 기쿠치 계곡에서 큰 낙차와 가장 큰 낙수 소리를 자랑하는 폭포 가운데 하나로서, 물이 계단 모양 암반 위를 타고 내려와 아래의 류가부치 용소에 흘러든다. 류가부치 용소에 놓인 다리에서는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, 양쪽 기슭의 산책로에서도 볼 수 있다.

일찍이 덴구다키 폭포는 덴구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울창한 덤불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다. 덴구란 슈겐도와 관계가 있는, 코가 긴 요괴 같은 전설상의 생물이다. 수백 년 전 이 폭포는 슈겐도의 신자가 정신 수양을 위해 장기간 대자연 속에서 나오지 않는 수행 장소의 일부였다고 생각되고 있다. 가까운 산에서 수행하는 신자는 때때로 덴구다키 폭포에 들러 차가운 물로 몸을 정결히 했다고 한다.